

제 1회 언더싸롱 배 망월장
The first MWZ with undersalon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1년의 어느 날 밤.
코펜하겐의 어느 술집에서 몇명의 엔지니어들이 술먹고 떠드는 걸 엿듣다
그들 중 누군가 “난 코드만 보고도 이 코드가 누가 쓴건지 알거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어는 쓰임새에 따라 논리가 되기도, 수학적 연산이 되기도, 그리고 문학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는 쓰임새에 따라 논리가 되기도, 수학적 연산이 되기도, 그리고 문학이 되기도 합니다.
코드도 쓰임새에 따라 논리가 되기도, 수학적 연산이 되기도, 그리고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동을 위한 코드가 아닌 읽고 감상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0.5 KB 이하의 크기
- 컴파일되긴 해야됨 (결과가 어찌 나오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지만)

감을 잡기 위한 연습 주제 1

개발자

감을 잡기 위한 연습 주제 2

시간

혹시나 궁금하실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끝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끝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1.오늘 받은 시를 추려 시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끝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 1.오늘 받은 시를 추려 시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크게 인쇄해 출근 시간 판교역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끝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 1.오늘 받은 시를 추려 시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크게 인쇄해 출근 시간 판교역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 3.돈 주시면 뽑아도 드립니다.(액자도 돈 받고 헤드림)

그럼 본격적인 망월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제

자유 주제